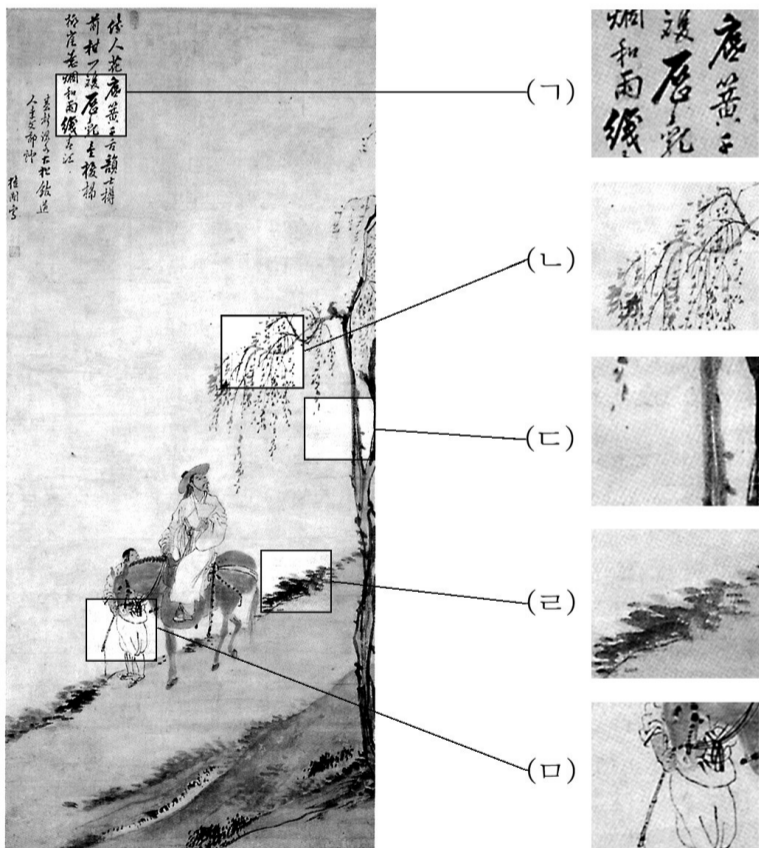


# 언어영역

1

○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십시오.

니다.



확대 실시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이란 보고서를 쓸 때, 이에 포함될  
내용으로 적절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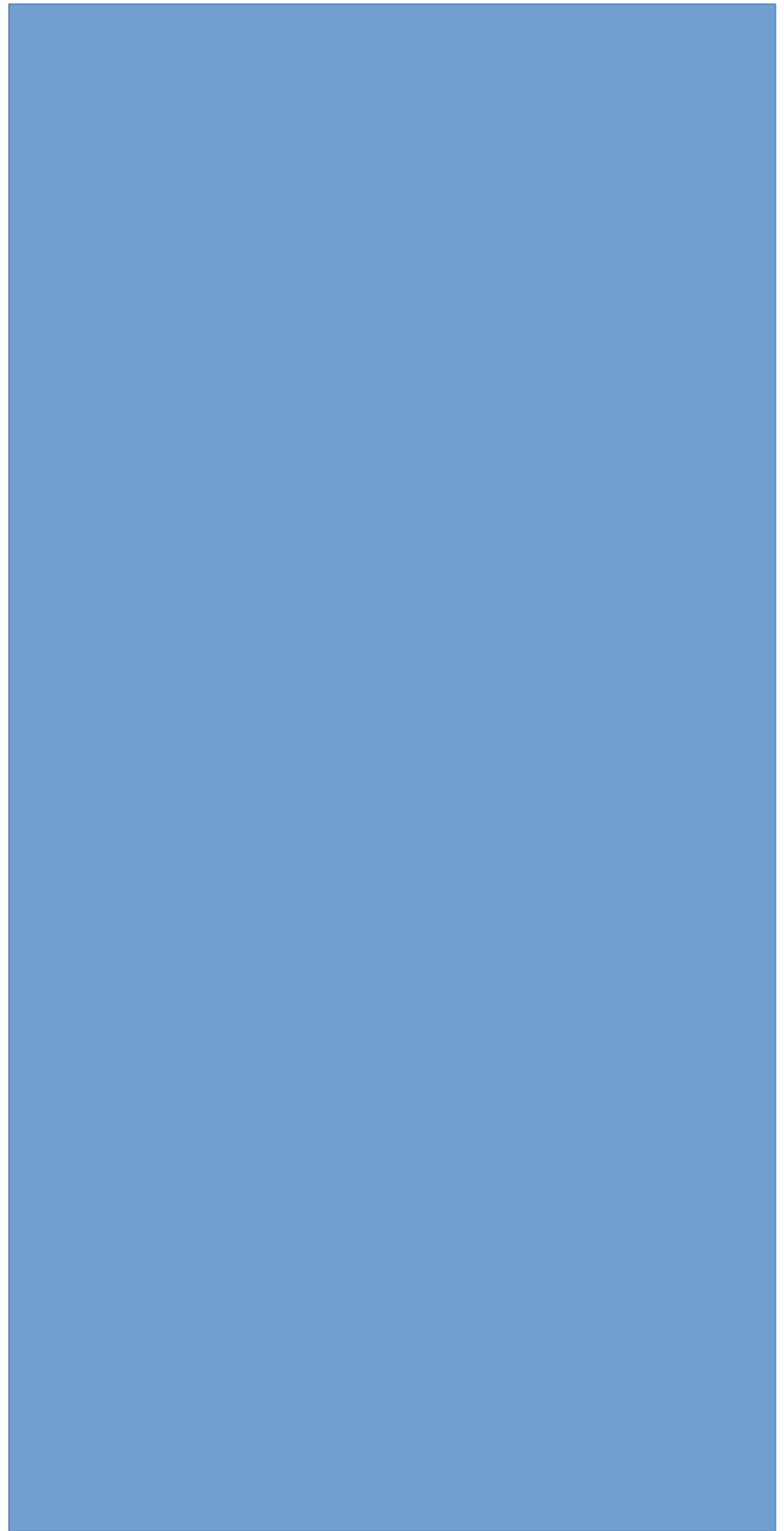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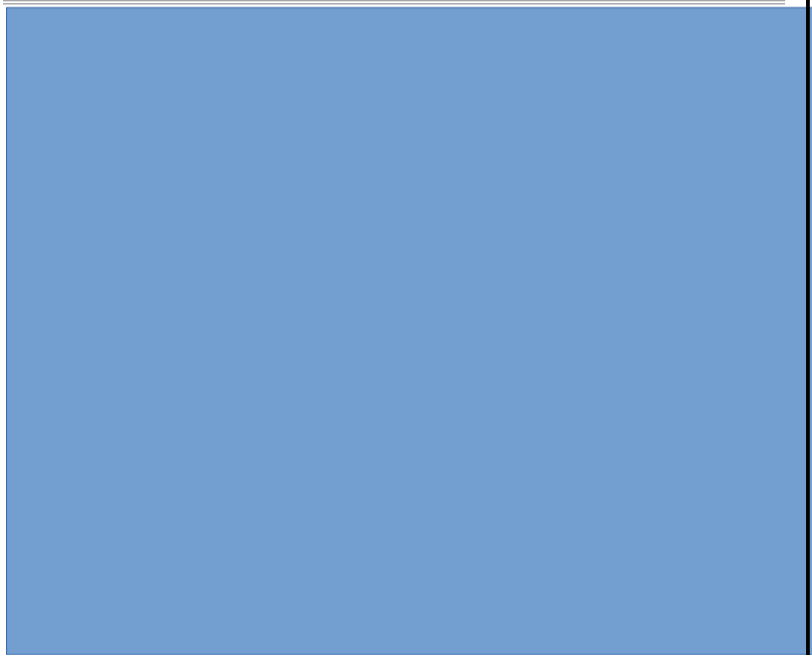
않은 것은?

---

# 언어영역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않은 것은? [3 점]



# 언어영역

얕은 것은? [1 점]

고마와요.

틀린 거야.

삼갑시다.

설레인다.

날라가고 있습니다.

㉠

㉡

㉢

감정적(㉠??)    감성적(㉡??)

감성적(㉢??)    감정적(㉣??)

감상적(㉤??)    감성적(㉥??)

감성적(㉦??)    감상적(㉧??)

감정적(㉨??)    감상적(㉩??)

(가)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쓰여

지금은 가야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 언어영역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인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낙화 -

(나)

[A]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 볼 때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

(다)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 갔다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하네.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직녀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돌아나는 풀썩을 나는 세이고……

하이언 하이언 구름 속에서

베틀에 북을 놀리게.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칠월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 서정주, 건우의 노래 -

## 언어영역

얹은 것은?

[지난 줄거리] 6·25 전쟁 중 마을에 나타난 소녀[명선]는 피난길에 공습으로 부모를 잃었으나, 어머니의 배려로 몇 개의 금반지를 가지고 있었다. 부모가 죽은 후 숙부조차 금반지를 노리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소녀는 숙부로부터 도망친다. 금반지 한 개를 내놓으며 마을에 머물게 된 소녀는, 금반지를 빼앗으려는 나의 부모와 마을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한다.

"야아, 저게 무슨 꽃이지?"

그런데 그 애는 놀림 대신 갑자기 퐁퐁지같은 소리를 질렀다. 말타듯이 철근 뭉치에 올라앉아서 그 애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교각(∴) 바로 위, 무너져 내리다 만 ㉠

콘크리트더미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  
꽃송이 하나가 피어 있었다. 바람을 타고 온 꽃씨 한 알이 교각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 속에 어느 새 뿌리를 내린 모양이었다.

"꽃 이름이 뭐지 아니?"

난생 처음 보는 듯한, 해바라기를 축소해 놓은 모양의 동전 만한 들꽃이었다.

"쥐바라송꽃……."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거라면 명선이는 내가

# 언어영역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쥐바라송이란 이 세상엔 없는 꽃 이름이었다. 엉겁결에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어낼 수 있었는지 나 자신이 어리벉벉할 지경이었다.

"쥐바라송꽃……, 이름처럼 정말 이쁜 꽃이구나. 참 양중 맞게두 생겼다."

또 한바탕 위험한 곡예 끝에 그 애는 기어코 그 쥐바라송꽃을 꺾어 올려 손에 들고는 냄새를 맡아보다가 손바닥 사이에 넣어 대공을 비벼서 양산처럼 팽글팽글 돌리다가 끝내는 머리에 꽂는 것이었다. 다시 이 쪽으로 건너오려는데, 이 때 ㊸

바람이 휩 불어 명선이의 치맛자락이 훌렁 들리면서 머리에서 꽃이 떨어졌다. 나는 해바라기 모양의 그 작고 노란 쥐바라송꽃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 싹누런 ㊸ 흙탕물이 도도히 흐르는 강심을 향해 바람개비처럼 맴돌며 떨어져 내리는 모양을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가 명선이한테서 순순히 얻어낸 금반지는 두 번째 것으로 마지막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갖 지혜를 짜내어 백방으로 숨겨 둔 장소를 알아내려 안간힘을 다해 보았으나, 금반지 근처에만 얘기가 닿아도 명선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 속의 도리질로 완강히 버티곤 했다.

날이 가고 달이 갔다.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드는 날씨였다. 남쪽에서 쳐 올라오는 국방군에 밀려 인민군이 북쪽으로 쫓겨가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나, 남쪽으로 피란 갔던 명선이네 숙부가 어느 날 불쑥 마을에 다시 나타날 경우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딱할 정도로 조바심치기 시작했다. 내가 벌써 귀뜸을 해 줘서 어른들은 명선이가 숙부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든 명선이의 입을 열게 하려고 아버지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릴 기세였다.

그 날도 나는 명선이와 함께 부서진 다리에 가서 놀고 있었다. 예의 그 위험천만한 곡예 장난을 명선이는 한창 즐기는 중이었다.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 그 애가 상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처럼 지옥의 가장귀를 향해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그 때 우리들 머리 위의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굉장한 폭음이 귀뺨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울렸다. 푸른 하늘 바탕을 질러 하얗게 호주기 편대가 떠 가고 있었다. ㊸

비행기의 폭음에 가려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 못하였다.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내는 서울 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 난 다리로 끌어냈을 때,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떨어져가는 한 송이 쥐바라송꽃이었다.

명선이가 들꽃이 되어 사라진 후, 어느 날 한적한 오후에 나는 그 때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모험을 혼자서 시도해 보았다. 겁쟁이라고 비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의외로 용기가 나고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은 것이었다. 나는 눈에 띄는 그 즉시 거대한 팽이로 둔갑해 버리는 까마득한 강바닥을 보지 않으려고 생땀을 흘렸다. 엽가락처럼 흘러내리다가 그 밑을 가로지르는 다른 선 위에

엎혀 다시 오르막을 타는 녹슨 철근의 우툴두툴한 표면만을 무섭게 응시하면서 한 뼘 한 뼘 신중히 건너갔다. 철근의 끝에 가까이 갈수록 강바람을 맞는 몸뚱이가 사정없이 까불렸다. 그러나 나는 천신만고(???)나 끝에 마침내 그 일을 해내고 말았다. 이젠 어느 누구도, 제아무리 쥐바라송꽃일지라도 나를 비웃을 수는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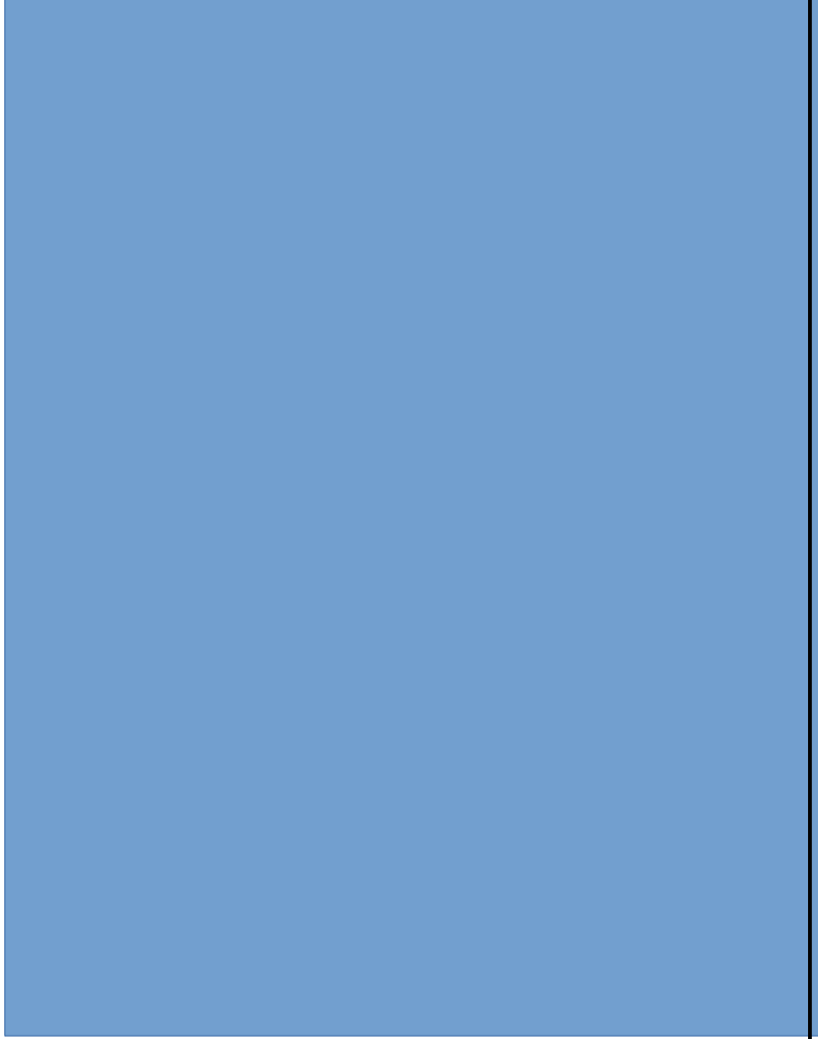
지옥의 가장귀를 타고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바로 되돌아 나오려는데, 그 때 이상한 물건이 얼핏 시야에 들어왔다. 낚싯바늘 모양으로 꼬부라진 철근의 끝자락에다 천으로 친친 동여맨 자그만 형쥬 주머니였다. 명선이가 들꽃을 꺾던 때보다 더 위태로운 동작으로 나는 주머니를 어렵게 손에 넣었다. 가슴을 잡죄는 긴장 때문에 주머니를 열어 보는 내 손이 무섭게 경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머니 속에서 말갱게 빛을 발하는 동그라미 몇 개를 보는 순간, 나는 손에 든 물건을 송두리째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 윤희길, 기억 속의 들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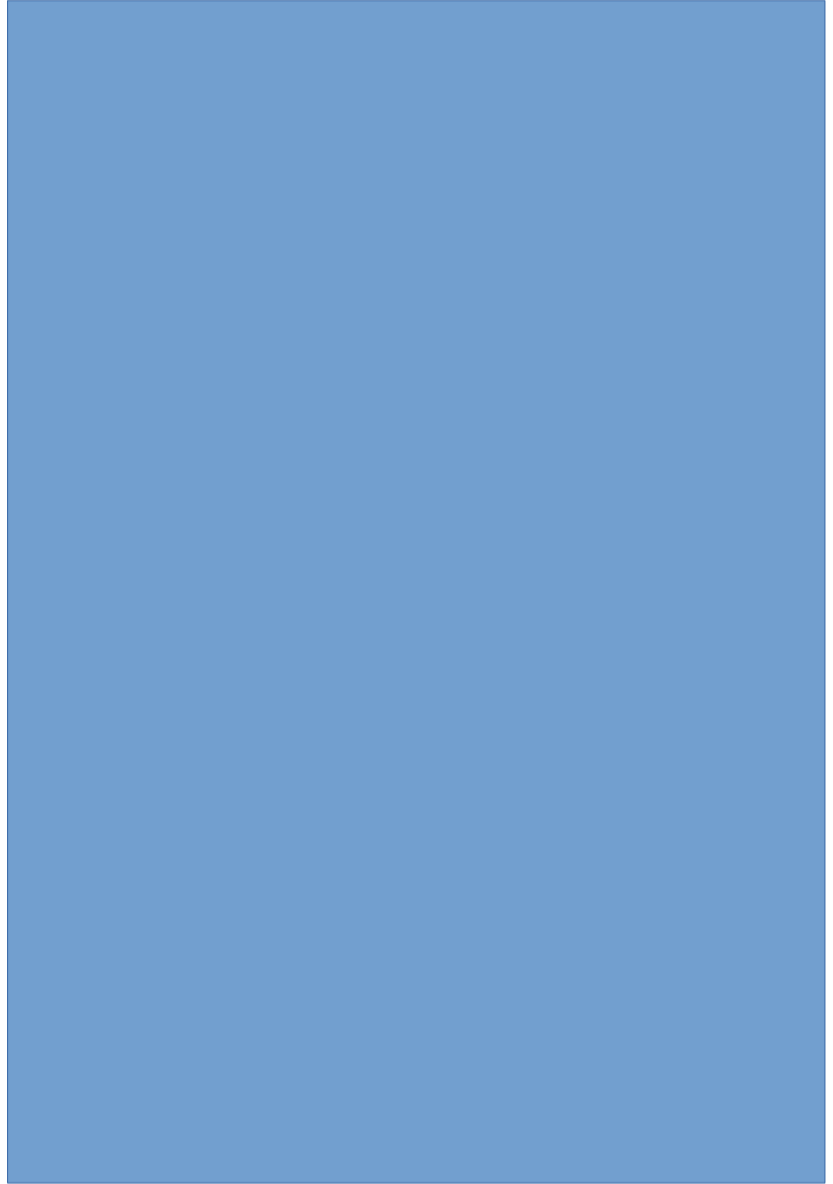
# 언어영역

7

이질적인 것은? [1 점]



않은 것은?



# 언어영역

(가)  
유노·노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습가.  
이어라 이어라

?어?흔 툇어 집이 노 나 속의 나락들락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말가한 기픈 소희 온갈 고기 뛰노노·다.  
㉠

년넙히 밥 싸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청□약?립은 씨 잇노라(ㄷ)녹?사?의 가져오나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비해기부꾸노 노내뎡노·노가 제 좃노·노가  
?슈너 국의 기·오·르히 드니 고기마다 사·르져 인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만기경?딩?빠의 슬크·지?용?여ㅎ·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인□간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 윤선도, 어부사시사(?????) -  
(나)  
새로 거른 ㉡

막걸리 젓빛처럼 뿌영고  
큰 사밭에 보리밥, 높이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께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벌을 받아 번쩍이네.  
옹해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이 점점 높아지고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  
- 정약용, 타맥행(???) -

(다)  
논밭 갈아 기음 매고 뵈잠방이 다임 쳐 신들메고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두리매고 무림 산중(?????)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쉼을 뷘거니 버히거니 지게에 질며 지팡이 바쳐 놓고  
새암을 찾아가서 점심(??) 도습 부시고 곰방대를 툇툇 떨어 ㉢

뉘담배 뛰여 물고 코노래 조오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제 어깨를 추이르며 긴 소래 지른 소래 하며 어이  
갈고 하더라.

- 사설시조 -

- \*기음 : 김, 논 밭에 난 잡풀
- \*신들메고 : 신이 벗어지지 않도록 밭에 잡아매고
- \*버려 : 버리어. 날카롭게 갈아
- \*삭다리 : 삭정이. 산 나무에 붙은 죽은 가지
- \*도습 : 도시락      \*부시고 : 비우고

## 언어영역

않은 것은?

문신(??)은 말 그대로 몸에 새기는 무늬이다. 문신 문화에 관한 고고학이나 인류학, 그리고 역사학의 자료를 참조하면 문신은 특정 문화권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문화 현상이었다. 알프스에서 발견된 5천여 년 전 청동기 시대의 사냥꾼 미라에도 문신이 있었고 19세기 또는 20세기 초까지 석기시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남태평양의 섬이나 중국 서남부의 여러 민족들도 문신 습속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 역시 삼한 시대에 문신 습속이 있었다.

인류 문화의 보편적 현상인 문신은 고통스러운 신체 장식술을 통해 특정한 사회적 의미를 표현한다. 역사서의 기록이나 구술 전승에 따르면 문신은 어로·수렵 등 생산 활동 중에 있

을 수 있는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주술적 기능을 수행했다. 또 문신에는 문신을 하지 않거나 다른 형태의 문신을 한 종족과 동일 문신의 종족을 구별해주는 종족표지 기능도 있었다. 그리고 문신은 위치나 형태를 통해 신분의 고하(·?)나 결혼의 유무 등 사회적 신분을 표시하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이때 문신하기는 일종의 통과의례이다. 그러나 문신에는 이와 같은 종교적·실용적 기능 외에도 미적 기능이 있다. 옷이 신분을 드러내는 표지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움의 표현이듯이 문신 역시 문신 사회에서는

아름다움의 표현이었다.

오늘날에도 원시 사회의 문신이 지니고 있던 이런 기능들은 축소되거나 변형된 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던 주술문신은 늘 승부에 몸을 던지는 스포츠 선수들의 몸 위에 남아 있다. 그들은 문신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고 승리를 기원한다. 문신의 미적 기능 역시 눈썹을 그리는 미용문신의 이름으로 여성들의 신체에 남아 있으며, 예술문신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장르로 태어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종족표지의 기능을 수행하던 문신은 범죄 집단에서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왜곡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문신은 죄의 대가로 새기는 형벌문신의 영향과 유가적(·?) 신체관의 유산 때문에 반사회적·반윤리적 이미지를 ㉠

불러일으키는 불온한 상징물로 간주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것은 유가적 신체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세대들의 자의식을 드러내는 도전적 상징물이고, 몸을 화폭으로 삼아 새겨내는 전위적 예술이기도 하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특정한 문신 시술을 범법 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일부 새로운 세대들에게 문신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중세와 근대를 거치면서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신체를 부모와 가족을 매개로 국가에 연계된 것으로 인식해왔다. 몸을 잘 간수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었고, 필요하면 몸을 산화(·?)하는 것이 충(·?)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들에게 몸은 더 이상 그런 관계 속에 있지 않다. 그들에게는 '이것은 나의 몸'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문신을 비롯한 피어싱·보디페인팅과 같은 신체 장식술과 변형술은 바로 이런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들의 의식 안에서 문신은 윤리의 차원을 벗어나 개인적 취향의 문제로 재탄생할 것이다. 21세기 우리 사회에서 문신은 ㉡

'아이들의 원만한 공존'을 재는 상징적 지표의 하나이다.

않는 것은? [1 점]

# 언어영역

않은 것은?

또한 '사실'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을 '가설'이라고 하는데, 과학적인 가설은 실험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입증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하며, 이 가설이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모순이 없을 때 '법칙'이 된다. '우주의 어느 곳에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한다'라는 주장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이 가설은 타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추측'에 불과하다. 우주 어딘가에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사실'로 입증되겠지만,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서는 우주에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옳고 그름을 검증할 수 없는 주장은 과학적 가설이 아니다.

한편, 과학자가 어떤 가설이나 원리를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가도, 그렇지 않다는 확증을 발견하면 더 이상 '사실'이 되지 않는다. 원래의 가설이나 원리를 주창한 사람의 권위나 평판에 관계없이 단호하게 종래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의 떨어지는 속도는 무게에 비례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이 주장은 이천 년 이상 '사실'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  
그러나 갈릴레오는 이 사실에 의문을 가졌고, 여러가지 관찰을 통해 물체의 떨어지는 속도는 무게와 상관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다. ㉣  
결국 갈릴레오는 자유낙하 실험을 통해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였다. ㉤  
즉, 무게가 다른 두 개의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학적 정신에 입각하면 단 한 번의 실험으로도 '사실'을 바꿀 수 있다.

과학자는 연구 도중에 기존의 원리와는 다른 실험적인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예상치 못한 실험의 결과가 지엽적이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과학자는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과학자는 자신이 보고자 한 것과 자신이 본 것을 구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자들도 다른 일반인들처럼, 많은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에 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적 이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것이며, 다시 개정되고 정비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한다. 예를 들어 '원자운동'의 경우 지난 수백년 동안 새로운 사실들이 축적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은 계속 수정되었다. 이와 같은 이론의 수정은 자연과학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되며,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모순 없는 법칙이나 진리에 가까이 가게 된다. 그러므로 반대적 실험 사실에 직면할 때나 가설에 의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을 때, 과학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개선하는 것이다.

어떤 현상이 절대적이며 변화하지 않는다고 인식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나 자연과학에서의 '사실'은 전문적이고 유능한 과학자들이 동일한 현상을 여러 번 관찰하여 확인한 것으로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까지의 협약이다.

# 언어영역



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방언 때문에 의사 소통이 안 된다거나 오해가 생긴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 언어영역

특정 시대,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서 사용하는 말을 정하여, 모든 국민이 배우고 쓸 수 있게 하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한 말을 표준어라고 한다.

우리 나라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계급적 조건을 나타내며, '현대'라는 말은 시대적 조건을 나타낸다. 이미 쓰이지 않게 된 말은 표준어가 될 수 없으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두루 쓰이고 있는 말이 표준어가 된다. 예를 들어, '머귀나무, 오동나무' 중에서 현대에는 '머귀나무'는 쓰이지 않으므로, '오동나무'가 표준어다. '서울'은 지역적 조건을 나타내는데, 이 곳은 문화적 □ 정치적 중심지이므로 여기에서 쓰이는 말이 전국 방언의 대표가 될 만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말이라고 해서 모두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말에도 방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시골말이라도 표준어가 되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규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표준어는 우리 나라의 공용어로서 국민의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며, 국어 순화에도 기여한다. 반면, 방언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의사 소통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선, □

표준어도 여러 방언 중에서 대표로 정해진 것이므로 방언이 없으면 표준어의 제정이 무의미하다. 그리고, □ 방언은 실제로 언중(??)들이 사용하는 국어이므로, 그 속에는 국어의 여러 가지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또한, □ 방언 속에는 옛말이 많이 남아 있어서, 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아울러, □ 방언은 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의 사람끼리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친근감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 방언 속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사상이 들어 있어서, 민족성과 전통, 풍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방언이 문학 작품에서 사용되면 현장감을 높일 수 있고 작품의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으며, 독자의 흥미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유구한 역사의 바탕 위에 풍부한 문화를 누리고, 교양을 갖춘 국민으로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은 의무이며 권리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방언을 사용하는 일도 의의 있는 일이며,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일도 게을리 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없는 것은? [1 점]



없는 것은?

# 언어영역

13

학문(?)은 '학(?)'과 '술(?)'의 두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술'은 원래 '도로(道?)'란 의미였다가 나중에 '방법'이란 뜻으로 변화되었다. 도로라는 것은 목적지를 전제로 한 것이며,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술'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며 방법이다. 다시 말해 지식 또는 기술인 것이다. 인간의 사회생활은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모두 '술'의 생활이다. 현대 문명을 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생활에서 '술'의 중요성을 잘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기술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수단이요 방법일 뿐이며, 그 가치는 방법적 가치, 응용적 가치에 불과한 것이다. '학'은 이와 달라, 그 자체가 목적이며 근원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동양적인 의미에서 '학'의 본래적 뜻은 '지혜를 통한 깨달음'이다. '깨닫는다[ ]'는 말은 '안다[ ]'는 말과 다르다. 사과가 익으면 떨어지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어쩌서 사과는 아래로만 떨어지고 위로 떨어지지 못하는가를 모르는 것은 인력(?)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까닭이다. 여기에서 깨달음과 앎의 차이가 발생한다.

우주의 삼라만상은 우리에게 온갖 경험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많은 경험의 결과들이 언제나 일치되거나 조화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 모순되는 때가 많다. 이런 모순에 봉착할 때마다 인간은 의문을 가지거나, 동요와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경우 무지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겠지만, 지혜롭고 참된 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오히려 그 모순을 해결하려는 의욕이 생긴다. 그가 느끼는 모순이 클수록 그의 해결 의욕은 더 강해진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이 경험한 바를 다시 한 번 반성하여 그것을 비교, 분석, 종합하는 지혜를 발휘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

길을 발견하면 비로소 그 모순은 해결되는 것이며, 그의 생활은 지혜를 통해 풍요롭게 된다. 이것을 동양의 학자들은 '지혜를 통한 깨달음'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학'이다.

학문을 이루는 개념요소를 둘로 나눌 때, 자연과 인생 그 자체의 이해를 위주로 하는 것은 '학'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요, 이용후생(?)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 생활과 물질적 생활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학'과 '술'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원래 학문적 이치와 응용은 병행하지 않으면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응용이 학문적 이치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문적 이치 역시 응용이 없이는 무의미한 것이다. 학문적 이치는 광범하게 응용되고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수록 진리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며, 실제 응용을 통해서만 학문적 이치의 결함을 발견하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후생의 방법은 자연과 인생 그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결국 '술'은 '학'의 토대 위에서만 성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까닭에 학문은 '술(?)'보다 '학(?)'에 치중하게 된다.

앎  
는 것은? [1 점]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매었다.

길로 도망갔다.

# 언어영역

길이 막막했다.

길에 늘 우리들의 간식을 사오신다.

길을 걷고 있다.

한국 춤을 흔히 멋과 흥의 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상성의 자연스런 파격'과 결부해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그것은 '제멋대로'의 것이어서 강한 개성이 드러난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e)?)도 절로절로  
산(?) 절로 수(?) 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자연 속에서의 원초적인 해방감은, 현실 세계 속에 세상 만사를 마치 '타고 노니는' 듯한 자유로운 일탈마저 엿보게 한다. 그러나 이 일탈은 현실에서의 도피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

이 일탈은 단조롭고 힘겨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활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음악이나 춤에서 '타고 노니는' 구체적인 표현의 하나인 '장단을 먹여 주는' 것이나 '엇박을 타는' 것에도 어떤 일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엄격한 틀 속에서 전래되어 온 궁중악이나 궁중 춤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또는 실현하는 사람이나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면서 변모되어 왔다. 한국인의 미적 심성에서는 ㉡

판에 박은 듯한 글씨나 그림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도자기를 굽더라도 서로 모양이 다른 것이 나오는 것에 묘미를 느낀다. 똑같은 것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는 것을 재미없어 하는 것이다.

같은 음악, 같은 춤을 공연하더라도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만큼 우리 공연 예술의 특성인 일회성이 두드러진다. 또 같은 춤을 공연하더라도 고정된 것을 반복하는 녹음테이프에 맞춰 하면 춤추는 사람부터가 어딘가 어색해지고 관중도 별 흥을 느끼지 못한다. 생음악의 반주어야 하고, 그것도 춤추는 사람과 반주하는 사람이 마주 보고 눈길을 서로 주고받으며 호흡을 같이해야 제대로 판이 어우러지는 것이다. 그래서 음악과 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때로는 음악과 춤이 전혀 제각기 제멋대로 공연되어도 좋은 것이다. 이를테면, 휘모리로 마구 몰아대는 음악 반주에 춤은 거기에 아랑곳없이 아주 느리고 태평스런 춤을 춘다든지 하는 음악과 춤의 이러한 극단적인 대비에서 오히려 역동성이 드러나고, 나아가

㉢ 음악과 춤의 만남은 극치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파격적인 일탈이나 불일치는 하나의 커다란 테두리 속에 포함되어 진행됨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반주자와

공연자가 '죽이 맞아' 이미 한 통속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틀은 공연 현장에서의 즉흥성을 보장해 준다. 우리는 이를 '통일적인 것 속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고, 전체 속에서의 부분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부분의 독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커다란 테두리 속의 즉흥성은 춤추는 이뿐만 아니라 보는 이에게까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로움을 보장해 준다. 한국 춤은 즉흥적이어서 놀이 층동 속에서 창조적 개성이 '놀아난다'.

얕은 것은? [1 점]

다른 것은?



귀가 뻐어서 우유부단한 점이 있다.

이가 아파서 점심 때 병원에 갔다.

입이 무거운 편이므로 비밀을 누설하는 일이 별로 없다.

# 언어영역

15

시치  
미를 뺐다.

오지랖이 넓어서 다른 사람이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

얇은 것은? [3 점]

사람은 저마다 저다운 마음의 안경을 쓰고 인생을 바라본다. 그 안경의 빛깔이 검고 흐린 사람도 있고 맑고 깨끗한 사람도 있다. 검은 안경을 쓰고 인생을 바라보느냐? 푸른 안경을 통해서 인생을 내다보느냐? 그것은 마음에 달린 문제다. 불평의 안경을 쓰고 인생을 내다보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모두 불평 투성이요, 감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인생에서 축복하고 싶은 것이 한없이 많을 것이다.

똑같은 달을 바라보면서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혹은 슬프게 혹은 정답게 혹은 허무하게 느껴진다. 행복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육체를 쓰고 사는 정신인 이상, 또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인 이상, 누구든지 먹고살기 위한 의식주와 처자(??)와 친구와 명성과 사회적 지위가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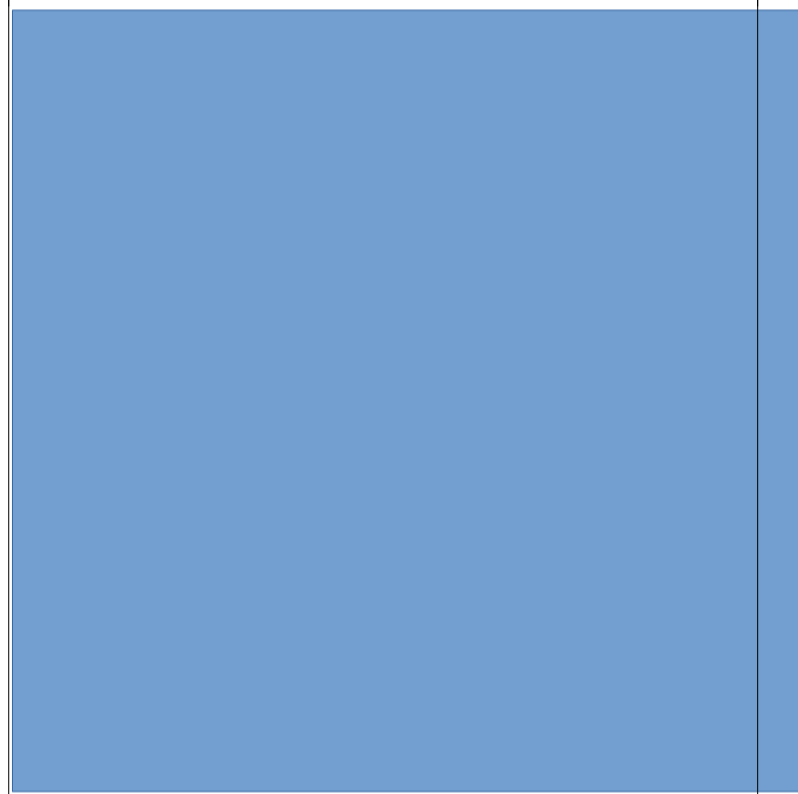
돈, 건강, 가정, 명성, 쾌락 등은 행복에 필요한 조건이다. 이런 조건을 떠나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러나 행복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곧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행복의 조건을 갖는다는 것과는 엄연히 구별해야 할 별개의 문제다. 집을 지으려면 ㉡ 돌과 나무와 흙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갖추었다고 곧 집이 되는 것이 아님과 마찬가지로 논리다.

행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

행복감을 떠나서 행복이 달리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성이 높고 좋은 가정을 갖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조

건을 가지면서도 불행한 사람, 또 그와 반대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별로 갖지 못하면서도 사실상 행복한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서 가끔 본다. 전자의 불행은 어디서 유래하며 후자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

사람은 자기가 결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고 링컨은 말했다. 행복이 마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마음의 어떠한 문제일까?

- 안병욱, 행복의 메타포 -

얇은 것은?

다른 것은? [1 점]

# 언어영역

이 세상에 인류가 생긴 지도 벌써 오래 되었다. 간교로운 일이 날로 치열하고, 거짓의 행위가 날로 들끓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세상에는 이런 일이 생겼다. 굶어 죽은 시신을 짊어지고 남의 문 밖에 서서 주인을 급히 불러 일부러 그의 노여움을 충동시켜 놓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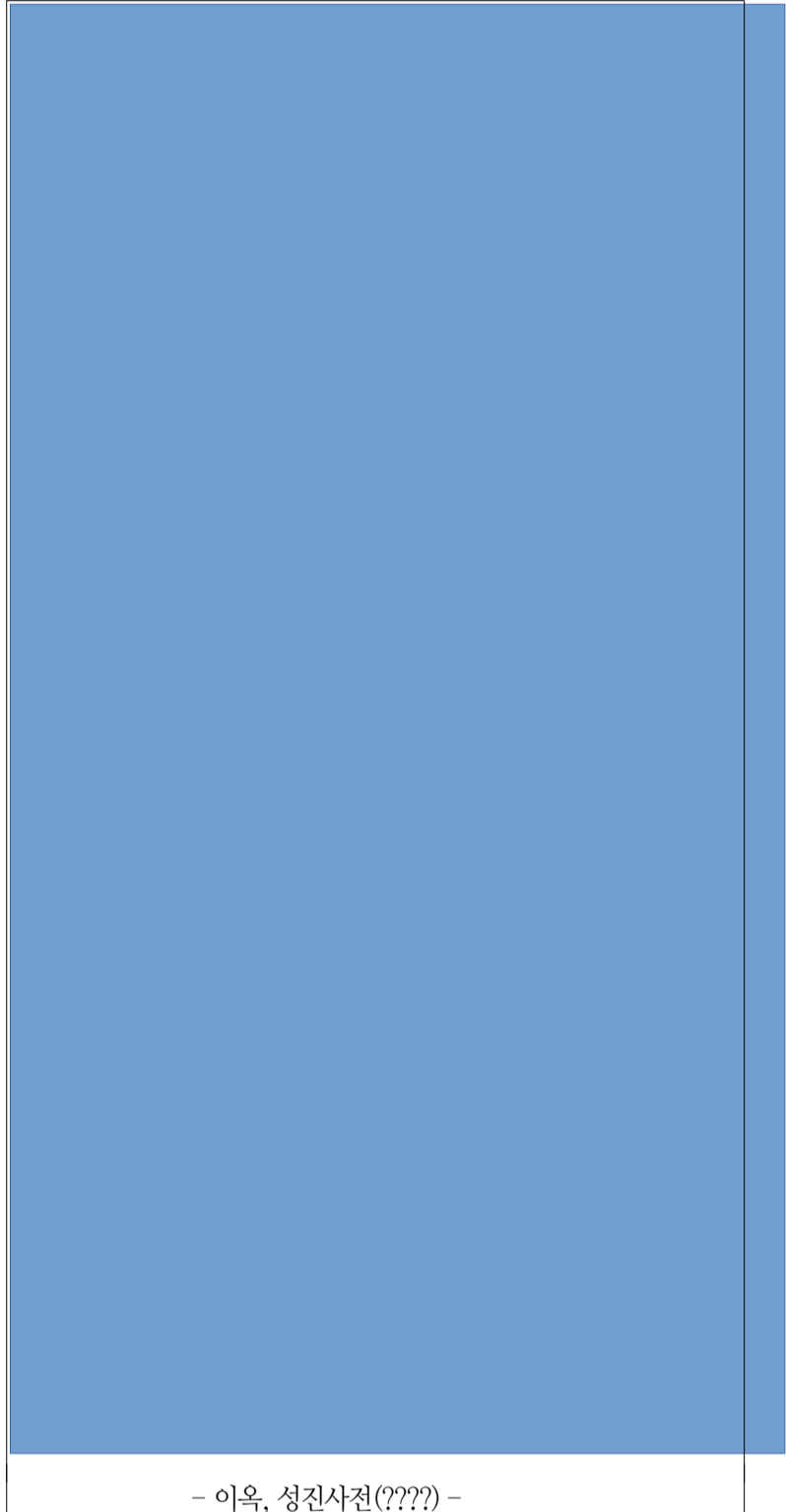
그리고 종말에는 서로 붙잡고 격투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주인 놈이 나의 둘도 없는 벗을 죽였네."  
하고 외치며 그 죽은 시신을 내놓고 장차 관가를 찾아 고발하려 했다. 주인은 그 연유를 알지 못하고중한 재물을 허비하고서야 일이 바야흐로 가라앉게 되었다. ㉡

그야말로 험악한 일이구려. 그러나 지극히 삼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간사한 놈일지라도 그 꾀를 팔 수 없는 법이었다.

그러므로 상말에는 '삼정승 사귀지 말고, 내 한 몸 조심하여라.' 하였으니, ㉢

이제 성(?)씨의 아들이야말로 그런 사람이구려.



- 이옥, 성진사전(????) -

않은 것은? [1 점]

# 언어영역

17

않은 것은?

---